

##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요14:1~3)

요한복음 14:1~3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중요한 것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잔소리를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해도 아이들이 그거 기억을 못하거든요.

저도 이 King James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차례 읽기도 하고 또 번역 하기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잊어버리게 이렇게 해 주셔서 매번 읽을 때 마다 ‘아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책무중의 하나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려 주는 것, 이것이 목사의 책무중의 이제 하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을 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며 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교리가 구원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원 받아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고 결국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구원 받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다. 이거 이야기 하는 게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 교리 다음에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하면 재림 교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교리가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이 218장 있는데 그 가운데 재림이 318회가 기록이 돼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한(1) 장 읽을 때 마다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와 같은 말이 약 1.5회 정도 나올 정도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와 같은 그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교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뭐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낸 그와 같은 말이 아니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리임을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 받아야 되는 이 구원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일단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재림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화가 돼서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썩을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심지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롬 8:19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온다”고 스무 차례 말씀 하시고 특히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1장에 이런 내용이 많이 기록이 돼있고,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 전체에서 약 50회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

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러지셨으며” -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는 여가 나와 있는 그대로 “많은 사람의 죄들을” - 제거 하시면서 단 한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시는 그러한 오심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 라고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 재림 때에는 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와 같은 해결 책을 받아 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 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맨 마지막 22장까지 전체가 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읽고, 듣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기만 해도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 책이 요한계시록 이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 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면서 성경의 맨 마지막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무리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좀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통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린다. 이런데 가면, 재림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다급함과 위급하다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해야 그래야 매일 교회에 모이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 말 잘 듣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림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동안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구원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재림이다.” 라고 말씀 드린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재림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재림의 메시지를 제가 전달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히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몇 일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에 온다고 하는 교황이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고 그렇게 믿는 목사를 조롱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 돌아다니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도저히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구원 받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 받았지만 예수님 재림 이런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한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적인 이런 암울한 이런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올바른 것을 마귀를 향해서, 마귀의 사자를 향해서 무언가 올바른 것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재림의 메시지, 우리를 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재림의 메시지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마침이 죄의 사람이 이 나라를 방문할 때 우리가 이런,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초림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려 그분의

십자가와 피와 그 다음에 부활과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초림의 메시지가 있고 재림의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메시지가 초림의 메시지 보다 여덟 배나 많습니다. 그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도 물론 중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있어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재림의 필요성과 또 재림의 징조 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저녁 여섯 시부터 밤 열 두 시까지 약 여섯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섯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다섯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주의 만찬을 제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일 대 일로 겻세마네에서 기도 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노라.” - 라고 이야기 하면서 -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유언의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예수님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30절은 그 열두 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배반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31절에서부터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33절에 예수님이 아주 묘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 내가 어디로 가는 데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니까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

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예수님 왜 제가 지금은 따라 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내 놓겠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니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네가 내 생명을 내 놓겠다고 하느냐? 오늘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배반 할 거다. 부인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13장에 이제 기록이 돼있습니다.

자,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천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 제자들의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한번 넣어보세요. 삼 년 동안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와 같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삼 년 반 동안 열심히 이 예수님을 쫓아 다녔어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시고 무언가 정말 큰 일을 할 줄로 알고 지금, 쫓아 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하시냐며 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데, 어디로 간다. 너희가 일지 못하는 어디로 가는데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 올 수가 없다. 나중은 따라 올 수가 있다.’ 라고 얘기 하니깐 이게 보통 미스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삼 년 반 그 공생애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고 하면서 교회를 또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바로 곧바로 무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뭐라고 말씀 하세요? ‘내가 가기 전에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하시고 드디어 지금, 돌아 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는 아주 들어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데, 너희가 지금은 따라 올 수가 없다. 나중에는 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야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제자들의 근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좀 이해가 될 텐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깐 마음에 근심이 대단히 컸던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근심에 가득 찬 이 제자들 의문에 가득 찬 이 제자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바로 내일 자기들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예측도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만찬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빵과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런 장엄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근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뒤에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 부활 하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당한 우리에게 근심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요.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이것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무에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엿새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을 일시에 제거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우리

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놓여있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작용하기 시작할 때 그 죽어있던 그 몸이 일어나서 부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던 자들 다 같이 부활 하고 동시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고 예수님이 이 근심에 잠겨있는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왜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 그렇게 이야기 해 줘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mansion이 많다는 거요. 이 조그만 이런 빈약한 이런 오두막 집이 아니라 mansion 아시지요. mansion, 내 아버지 집에 mansion, 거할 때가 굉장히 많다. 너희들 다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데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 -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 ‘너희가 삼 년 반 동안 나를 쫓아 다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다 얘기해 주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핵심을 이제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 바로 -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무슨 말씀이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갔다가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제자들, 구약시대 이 제자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지금 한 번 올 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번 오셨잖아요. 그래 뭐라, 내가 다시 가야 된다는 거요. 그 다음에 다시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여기 앉아있던 그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신비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이 신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일어나기 이제 시작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창세 이후로 가려졌던 교회의 신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약 60년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 드려 사도 요한이,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 사이의 이런 그 비밀, 신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은 이후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런 그 말씀 이것에 대한 그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받고 그 요한계시록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며 는 그러면 그 때에 가서는 분명히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내가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왜 필요한 것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풍습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단계는 정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 하기 위해서는 저기 신부 집이 있을 때에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에게로 내려가요.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그 아버지에게 주고 그 신부를 사서 그리고 정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약속만 결혼하고, 물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약혼과 다른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아내와 남편이 되데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그 때 맺는 것이 아니요. 일단 결혼, 정혼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정혼 약속을 하고는 어디로 가요? 자기 아버지에게 다시 가서, 신부와 함께 살수 있는 그러한 집을 마련한 뒤에 다시 신부에게로 내려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데려오면 거기 아버지 집에 많은 하객들이 이미 모여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신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부 데려온 것만 알리고 그리고는 그 때 들어가서 함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약 7일 동안에 결혼 예식이 다 끝난 이후에, 이 신부 방에서 신부를 데려다가 거기 있던 하객들에게 소개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계시던 그 하늘을 떠나서 지금 이 땅에 내려 오셨어요. 땅에 내려 오셔서 뭘 하러 오셨냐? 정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정혼. 그렇지요. 그래서 자기의 신부와 정혼을 하려고, 그 정혼을 하려면 정혼 언약이 있어야 되는 데 바로 이날, 바로 이날,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 피는 이 피로 세우는 내 상속언약이라고 하는 이 신약 새로운 그 언약에 정혼 약속을 하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다시 가서 처소를 마련한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신부를 데려와야.

가서 잔치는 어디에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다,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꼭 채워지게 되는 그 때에 바로 이 성경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난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신부를 공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 받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아직 아내는 되지 않았어요. 아내는 나중에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서 혼인 잔치가 된 이후에 아내간 된 상태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은 정혼 상태고 나중에, 혼인이 완전히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 지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채 올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갖는 자들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을 가서 보니까 디도서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있습니다. 디도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 가서 보니까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해서 의로운 그런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얼 하나 해야 되냐?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저 복된 휴거의 소망, 그렇지요. 저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

람이 구원 받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리면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다시 천국 가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일단 교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둘 중의 하나요. 구원 받은 사람이 휴거의 소망이 없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 천국의 소망이 없다.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제일 좋다. 라고 이야기 하면 그 문제가 굉장히 큰 거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면 구원 받지 못했을 수가 있고, 조금 덜 심각한 것으로 이야기 하면 아직 덜 떨어진 거요. 아주 간단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재림의 소망이 없다. 휴거의 소망이 없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고 이 중요한 교리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사실이 확실한 사실이요 온다, 안 온다.를 논의할 그와 같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의 대상이다. 이내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남자들 또 여자들 결혼한 이후에 남자는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마련 하는데 여자는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남편 될 사람이 언제 다시 오는 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보통 한 1년 정도 되면, 1년 정도, 처소를 다 예비하면 그러면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된다 하는 것들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는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이 될지, 앞으로 1년 있다가 될지, 20년 있다가 될지 저와 여러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시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언.

다시 말씀 드려서 정확한 날짜를 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잠을 자고 있든지, 차를 타고 가고 있든지, 비행기 안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고 올라 갈 겁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어요. 날짜를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의 때가 정말 눈 앞에 가까이 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와 같은 표적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오늘 이렇게 하늘이 붉으면 그러면 참 날씨가 좋구나 그렇게 이야기 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좋지 않겠구나.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무어라고 말씀 하시느냐,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줄 아는데 어떻게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다시 말씀 드려 하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이 보시면 날이 낫을지, 날이 좋을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시대가 돌아가는 이러한 표적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의 전체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국을 건설 하려고

했지만 아담이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 왕국계획을 망쳐 놓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런 일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망쳐 놓은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의 계획, 그 왕국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 하시는 데로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 그 왕국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존재할 때까지, 다시 말씀 드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왕국.

그래서 바로 왕국을 세우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날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 프로그램을 세우고 그거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실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고가 됐던 구약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 왕국을 그 땅에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삼 년 반 동안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맙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 내가 너희를 - “암탉이 자기 날개에 자기 새끼들을 모으듯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나를 배반 하고 거절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 집이 버림 받아 황폐하게 되었다.” - 말씀하시면서 -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너희가 나를 맞이 할 때까지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 드려 이스라엘 백성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때 바로 그 때가 재림의 때가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도 똑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서 사도행전 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6절에 제자들이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 이제 부활도 하시고, 이제 모든 게 다 잘 됐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왕국, 그 왕국을 이제는 한번 회복시켜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시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 -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 이제는 너희가 그런 것 신경 쓸 때가 아니다. - ”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 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교회시대가 열리게 되니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성립되는 가? 이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이후에 9절 가서 보니까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라” -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 그 때 -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 - 천사들이 -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



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 고 지금 천사가 말씀해 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걸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미국에 오실까요? 한국에 오실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오실까요? 어디에 오세요? 이스라엘에 오세요. 이스라엘에 특히 여기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데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어요? 올리브 산이어요. 감람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예수님이 거기서 올라 가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에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올리브 산에 내려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처소를 마련하러 갔다가 내가 다시 온다.’ 그렇지요. 다시 온다는 거요. 어디 온다는 거요? 예루살렘에 올리브 산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내려 온다. 예수님이 답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에는 저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지요? 유대인들이 살아야 되는 데 엄청난 일이, AD 70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들어 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 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온 세상으로 다 쫓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이 언제까지? 1948년 5월까지, 5월까지 이스라엘이 온 땅에 쫓겨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위협을 받으면서 그 한 1940년 동안 이 땅을 떠돌며 산 겁니다.

그럼 또 제가 또 간단한 것 여쭙 볼게요.

자, 1948년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 까요? 없을 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돼요? 아, 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안 살고, 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1948년 5월 14일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 나라가 하루 만에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 나게 된 겁니다. 그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시계 12시가 되면 재림이다. 이렇게 되면 11시 55분이 됐구나!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사는 사람은 11시 55분이구나 지금이 11시 55분,

자, 이러한 가운데 11시 57분이 되는 때가 1967년에 생겼어요. 1967년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 시가지 예루살렘, 올리브 산 이런 그 지역이 예루살렘 구 시가지인데 구 시가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소유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때까지는 돌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1967년도에 6일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어디를 차지하게 됐어요? 구 시가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 포함이 되어있는 성전 터가 있는 그 땅을 1967년도에 6일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획득을 하게 된 거요.

그 이 11시 57분이 된 겁니다. 11시 57분, 예수님이 오시기 3분 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고 이야기 하세요. 여기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귀 없는 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달아 들어라 고 이야기 하세요. 들어야 됩니다.

11시 57분이 됐어요.

자! 요새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에, 폭격이 지금 일어 나면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약 2,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알고 계세요? 2,000명.

가자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구약성경에 가시면 블레셋이 나와요. 그 블레셋을 영어로 표현한 게 팔레스타인 이어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 이어요. 저 블레셋이 과거의 이스라엘과 격투를 벌이고 전쟁을 벌이고 이 콜리앗이 블레셋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서로 싸웠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이어요. 저 블레셋 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구약시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주거지가 가자 이어요. 가자. 아스글론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 가다가 어디를, 가자를 지나는 이 사막지역, 이 사막지역을 지나 거든요. 이 때 빌립이 다가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거기가 바로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가자 지구,

자,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다시 말씀 드려 가나안 땅에 남서부에 있는 그런 지역이어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지중해 해안을 따라 길이가 얼마쯤 되냐 면 한 50km 정도되고 폭이 5에서 8km 정도가 되는 이와 같은 한 지역이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

그래서 1967년 6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이 시나이 반도전체와 함께 이 가자 지구를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서 이 가자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다시 그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내어 주고 유대인들은 다 철수한 그런 가운데 지금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자치구역 입니다. 바로 그 자치구역 바로 거기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을 자와 여러분이 보면서 온 세상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뭐 그냥 지지고 묶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먼저 에스겔서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 읽고 그리고 스가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그와 같은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 마른 뼈들에 - “들어가매” - 그 마른 뼈들이 -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가 됐다” - 성경이 이야기 합니다. - “그때에 그분께서” - 하나님께서 -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 유대인들 이니라. -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 지난 2천년 2천 5백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니는 가운데 우리의 뼈가 마르고 우리가 거할 데가 없고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 다 - “끊어” - 져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 12절 “그러므로” - 이 유대인들에게 -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2천년 2천 5백 년 동안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이 지내던 그 유대인들의 무덤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내가 메시아인 줄을 너희가 궁극적

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스가랴서 12장에 다시 한번 그러한 때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돼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에워쌀 때니라.” -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 -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 결국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누구를 칠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칠려고 모인다.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 하는 거예요? - “그 돌” -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 “돌로 짐을 진 자는 다 산산조각 끊어” - 저서 없어지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 보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저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러시아가 어떻게 하던지 이스라엘을 없앨려고 하는 걸, 아랍에 있는 그런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쳐서 없앨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바로 이 때가 11시 58분이 되어 가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애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죽고, 총 맞아 죽고, 폭탄 맞아 죽고,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의 일을 떠나서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이 전체 세상을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 땅에 서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저 이스라엘을 지지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아니어요. 교황이 아니라 그래도 다 거짓말입니다.

죄의 사람이 무어라고 이야기 한들 우리가 그의 말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쟁이요 마귀의 앞잡이가 이야기 하는 것이기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깨지면 그럼 기독교가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 남아 있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 죽지 아니하고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어 오는 그 올라가는 그일, 휴거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어라고 말씀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고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굳건히 허락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세상을 깨끗이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 끝 -